

---

##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용철

---

김용철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학사, 석사)하고 일본 도쿄대학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분야는 동아시아근대미술사 및 일본미술사이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성신여대 전임강사를 지냈고, 주요저술로는 「오카쿠라 텐신과 일본미술사의 성립」(『日本思想』7, 2004), 「후지타 쓰구하루의 전쟁화」(『한국근대미술사학』15집 특별호, 2005), 「몽룡체화법과 한국근대동양화」(『한국근대미술사학』16집 상반기, 2006), 「근대 일본인의 고구려고분벽화 조사와 모사, 그리고 활용」(『美術史學研究』254, 2007), 「徐悲鴻의 <愚公移山>」(『中國史研究』50, 2007), 「만주국미술전람회의 설치와 그 의의」(『한국근현대미술사학』18, 2007), 「嶺南畫派 三傑의 출판활동과 회화에 관한 시론」(『中國史研究』61, 2009), 「에도시대의 실학과 문화」(이산, 2005, 공저) 등이 있다.

#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okyo National School of Fine Arts

KIM Yongcheol

Although there is almost no over-lapping period of existence between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okyo National School of Fine Arts, they have intimate human and institutional relation as national academy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construction period of each nation state. The fact that Chang Bal장발 who led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ied in Tokyo National School of Fine Arts and his juniors Kim Yongjun김용준, Kil Jinseop길진섭, Song Byeongdon송병돈, Yi Sunseok이순석, Yun Seunguk윤승욱, Kim Jongyeong김종영 became the professors of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ls the main lineage among the professors of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It seems that there is also personal relation which are concerning Mok-il group목일회 and Whimun High School휘문고보 where Chang Bal participated or taught, and in the cases of Yi Sunseok and Kil Jinseop, it is likely to be personal contact with Chang Bal from the fact that they tried to be a foreign student in Columbia University with English document. Different from the argument thus far, there is deep relation between the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okyo National School of Fine Arts in the institution because of college central administration and year grade system, and the same in the curriculum.

Key words: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kyo National School of Fine Arts, Chang Bal장발

1. 머리말
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설립과 관련한 해방 직후의 움직임
3.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인적 연관
4.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제도적 연관
5. 맺음말

## 1. 머리말

1946년 8월 미군정에 의한 미군정청법령 제 102호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국립서울대학교에 예술대학이 설치됨으로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도쿄미술학교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sup>1</sup>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배경으로 한 이 같은 상황은 일단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와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로 정리되었다. 이후 1951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이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분리되고, 도쿄미술학교의 경우 도쿄음악학교와 통합되어 도쿄예술대학이 됨으로써 그 후신에 해당하는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학교명칭 상으로는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존폐가 엇갈린 것이다.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그 존속연대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 한일 양국의 국민국가 건설기에 설립된 국립미술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1945년 해방 후 새로운 국가건설이 모색되던 시기에 설립이 추진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1868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고 국민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설립된 국립미술학교인 도쿄미술학교는 미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미술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 글에서 두 학교 사이의 연관을 다루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두 학교의 시간적 전후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단과대학으로 독립한 1951년 이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양자 사이의 인적 연관관계와 제도적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시기의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며,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는 데도 비중을 둘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1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서울대학교二十年史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二十年史』(서울대학교, 1966, pp. 441-444에서 재인용) 및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学百年史-東京美術学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 1078.

## 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설립과 관련한 해방 직후의 움직임

해방 직후 서울에서 전개된 미술학교 설립을 위한 미술계의 움직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사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갈래를 이루고 있었다. 첫 번째는 미군정청 문교부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다. 미군정청 문교차관 오천석과 교화국 국장 최승만, 교화국 예술과 고문 이순석, 서울시 학무국장 장발이 관계한 이 움직임은 미군정청이 장발에게 경성제국대학교 후신인 경성대학에 예술학부를 신설하고 음악부와 미술부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추진되었다.<sup>2</sup> 장발은 고희동과 이순석 등과 협의하는 한편으로 인선에 착수하여 김용준, 길진섭, 윤승욱 등을 교수로 영입함으로써 1946년 9월 개교에 이르렀다.

두 번째 움직임은 배운성을 주축으로 한 것이다.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는 조선예술대학, 조선예술원, 조선종합예술학교 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기관은 당초 미술을 비롯하여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교육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sup>3</sup> 미술 분야의 경우 배운성을 비롯하여 임용련, 김인승, 이종우, 도상봉, 김은호, 이상범, 정말조, 정종녀, 윤효중, 김경승, 강창원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7년 1월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설립계획안을 인가받은 이 학교의 설립준비는 입시요강까지 언론에 게재할 정도로 진척되었으나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의 설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미군정의 역할이다. 당시 미군정은 정부 수립 이전의 통치주체로서 배운성이 추진한 조선예술학교 설립을 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설립계획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푸스 대령이 미군정의 민정장관직에 있었다. 결국 군정장관을 보좌하는 민정장관에 한국인 안재홍이 임명되는 시점에 푸스 대령이 미국으로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그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그가 예술원대학의 산파역으

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서울대학교미술대학, 1993), p. 6.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藝術通信』1946. 6. 25.

로 알려졌던 사실은 당시 미군정의 막대한 영향력을 말해준다.<sup>4</sup>

국립서울대학교의 예술대학에 미술부와 음악부가 분리,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일본의 사정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정 치하에 있던 당시의 일본에서는 도쿄미술학교와 도쿄음악학교의 통합에 따라 도쿄예술대학이 설립되고, 두 학교는 미술학부와 음악학부로 존재하게 되었다.<sup>5</sup> 따라서,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여타 장르를 배제한 채 예술대학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일본의 경우와 연관 지어 보는 것도 그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인적 연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설립되는 과정, 그리고 초기 역사에서 도쿄미술학교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적 연관이다. 도쿄미술학교를 중퇴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한 장발이 주도한 설립과정에서 그의 인선에 의해 도쿄미술학교 출신인 김용준, 길진섭, 윤승욱, 이순석 등이 교수로 초빙되었다. 장발을 포함하여 이들 도쿄미술학교 수학생들은 김환기, 장우성 등과 초기 서울미대의 교수진을 구성하였지만, 그 출신으로 보자면 서울미대 교수진의 가장 유력한 학맥을 형성하였다.

그들이 도쿄미술학교에서 공부한 시기는 각각 다르다. 도쿄미술학교의 역사에서 보자면 적어도 세 시기에 걸쳐 있다. 먼저, 장발이 유학한 시기는 1919년 제국미술원 개설과 그에 따른 일본 미술계의 재편에 의해 도쿄미술학교도 조각과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진행된 시기이다. 3학년 진급을 앞둔 1922년 9월

4 『藝術通信』1946. 11. 9.

5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p. 1078-1079. 물론, 이를 장발이 수학한 컬럼비아대학처럼 종합대학에 속한 미술학부를 이상적인 교육구조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영목, 「한국현대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46-1960」, 『조형』19(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6), p. 50 및 정형민, 「창작과 교육의 공존의 가능성을 향하여-한국미술교육의 현대성의 논리」, 『조형』19(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6), p. 34.

그는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자퇴하였다.<sup>6</sup>

장발이 미국으로 떠난 후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한 김용준과 길진섭, 송병돈, 그리고 이순석은 비슷한 시기에 유학한 사실 외에도 모두 카와바타화학교 川端画学校에서 그림을 공부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재학할 당시 도쿄미술학교는 1923년의 규정 개정에 의해 변화를 겪었다. 먼저 그들의 입학에 서부터 달라진 입학제도가 적용되었다. 1924년 2월 「외국학생특별입학규정세칙 外國學生特別入學規程細則」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조선이나 대만과 같은 식민지를 포함하여 외국인 학생은 모두 선과생(選科生)이었으나 이때부터는 특별학생으로 불리게 되었다.<sup>7</sup> 특히 그 규정의 부칙에는 조선이나 대만 출신 학생도 외국인의 경우에 준용함을 명시함으로써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선과생이 아니라 특별학생이 되었다. 김용준과 길진섭, 송병돈 등은 당시 서양화과 특별학생이었고, 이순석은 도안과 특별학생이었다. 이같은 입학제도는 1929년에 변경될 때까지 적용되어 이들 외에도 이마동, 오지호 등이 같은 자격으로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또한 각 전공과의 운영에서는 예비과를 폐지하고 각 전공별로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이 소속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교과목 이수에도 변화를 초래하였고, 일본화과와 서양화과 학생은 각각 일본화실습과 서양화실습을 매학년 18시간 이상 이수하였으며, 이론과목으로 해부학과 원근법을 이수하였다.<sup>8</sup> 그 밖에도 회화사, 조각사, 건축사, 고고학, 풍속사, 미학, 문학, 공예사, 공예제작법, 외국어 등의 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었다. 당시 서양화과의 이수 교과목은 <표.1>과 같다.

6 吉田千鶴子,『近代東アジア美術留学生研究』(東京: ゆまに書房, 2009), p. 183. 장발의 경우 구체적인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1941년 조선미술가협회의 평의원이었던 사실도 도쿄미술학교 수학 경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로 도쿄미술학교 선배에 해당하는 日吉守, 遠田運雄, 山田新一 등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매일신보』1941. 4. 23.

7 김용철, 「도쿄미술학교의 입학제도와 조선인 유학생」, 『동악미술사학』6, pp. 57-58.

8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学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 158.

<표.1>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 교과목(1924-1932)

과목	매주수업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수신	1	1	1		
서양화실습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해부학	2	2			
원근법	2				
미학 및 미술사	동양미술사2 서양미술사2	서양회화사2	미학2		
외국어 (영어/불어)	2	2			
체조	2	2	2	2	
선택과목					
비고	1. 선택과목(회화사, 조각사, 건축사, 고고학, 풍속사, 미학, 문학, 공예사, 공예제작법, 외국어)은 3학년 이상에서 2과목으로 한다. 2. 5학년의 2, 3학기는 졸업제작만 이수한다. 3. 도화교원 지망자는 4학년 매주 교육학 및 심리학 2시간, 용기화법 4시간, 교수연습 2시간, 회화 및 도안을 6시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윤승욱과 김종영의 경우는 각각 1934년과 1936년에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한 경우로 1924년의 2월에 정해진 「외국학생특별입학규정세칙」의 부칙이 1929년 삭제됨에 따라 일본인 수험생들과 경쟁하는 별도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경우다.<sup>9</sup> 다만, 그들은 1933년 예과가 설치되고 수업 연한이 예과 1년에 본과 4년으로 바뀐 다음에 입학한 경우로, 각각 1934년과 1936년 조각과 소조부 예과에 입학하여 대학원 과정인 연구과에서 수학하였다.

1920년 9월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한 장발은 도쿄미술학교 재학중에 1학년 때에는 동양미술사와 서양미술사, 미술해부학, 영어, 원근법, 서양회화사를 이수하고 2학년 때에는 미술해부학, 서양회화사, 영어를 이수하였다. 후지시마 타케지 藤島武二 교실에 소속되어 있던 그는 도쿄미술학교 재학시절부터 독일 뮌헨의 그리스도교미술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간지를 구독할 정도였다.<sup>10</sup> 도쿄미술학교 재학 당시에 그가 그린 <김대건신부상>(1920년)의 그림자 부분

9 김용철, 앞의 글, pp. 58-62 참조.

10 이구열, 「한국 가톨릭 미술 2백년의 궤적」, 『계간미술』29(1984년 봄), p. 74.

에서 녹색조를 사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식 외광파의 화법을 수용하였던 그는 이후 보이론화파나 나비파, 표현주의 회화의 영향을 드러내며 기독교 성화에 주력하였다.

길진섭과 송병돈의 경우는 김용준과 비슷한 시기에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유학하였고, 둘 다 일본식 외광파 화가들의 단체 백마회 회원을 지낸 인물로서, 후일 도쿄미술학교 교장을 지낸 와다 에이사쿠 교실에 소속되어 있었다.<sup>11</sup> 1946년 10월 서양화과 교수로 부임한 길진섭은 이듬해 5월 조선미술동맹 위원장에 취임하고 곧 월북함으로써 당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송병돈은 길진섭이 월북한 이후인 1949년 9월 부임하여 해부학 등의 과목을 담당하였고, 한때 의과대학의 해부학 과목을 맡기도 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김용준의 경우 원래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 출신이었음에도 192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한 평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식민지시대 유력 미술평론가로 부상하였고, 해방 후에는 『朝鮮美術大要』(1949년)를 비롯한 저술을 통하여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가 되었다. 그가 회화과에 소속되어 동양미술사나 조선미술사 등의 과목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실기과목도 가르친 사실은 당시 그의 위상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실력자였음을 말해준다.<sup>12</sup>

1946년 10월 조소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윤승욱의 당시 조각경향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고, 김종영의 경우도 초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일 당시에는 구상조각의 경향이 강하였다. 그들이 도쿄미술학교에 재학할 당시 아사쿠라 후미오朝倉文夫, 다테하타 다이무建畠大夢 등이 지도한 조각과 소조부는 로댕의 조각경향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더욱 온건한 묘사로 바꾼 온건한 관전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던 만큼, 그들의 조각경향 또한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3</sup>

초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도안과 교수로 부임한 이순석은 1910년대 이후 일본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유행한 바와 같이 식물 문양을 주요 모티프로 하여

11 吉田千鶴子, 앞의 책, pp. 190-196.

12 김용준, 『새근원수필』근원김용준전집1(열화당, 2001) 및 『민족미술론』근원김용준전집5(열화당, 2002).

13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p. 20-22.

디자인한 도서장정을 졸업작품으로 제출하였고, 귀국한 이후에는 화신백화점 도안부에 근무한 바 있다. 해방 후 미군정청 교화국 예술과 고문을 역임한 그는 서울대학교 미술부 도안과 교수로 부임하여 도안과의 전공수업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술부 1학년의 구성 수업을 맡는 등 기초조형교육에도 관여하였다.

그런데, 도쿄미술학교에서 수학한 초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장발과 여타 도쿄미술학교 출신 교수들의 관계다. 1920년 9월에 입학한 장발이 3학년 진급을 앞둔 1922년 9월 미국 유학을 위해 자퇴한 만큼 장발이 도쿄미술학교에 재학한 시기에 그들과 직접 알고 지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김용준을 비롯하여 길진섭, 윤승욱, 이순석은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한 사실 외에도 그들의 주요학력 및 경력에서 장발과 관련이 있었다. 1926년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하여 1931년에 졸업한 김용준의 경우 카와바타화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934년 장발과 일본에 유학한 다른 미술가들과 함께 목일회牧日會를 결성하였다.<sup>14</sup> 도쿄미술학교 출신이면서 목일회에 참여한 또 다른 미술가로 길진섭이 있다. 1932년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는 도쿄미술학교 재학중이던 1931년 컬럼비아대학 유학을 위해 영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바 있다.<sup>15</sup> 이미 목일회에 참가하기 전인 1931년 장발과의 연락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목일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김용준과 같이 1931년에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한 이순석의 경우도 카와바타화학교에 수학한 바 있고, 졸업한 그해에 컬럼비아대학 유학을 위한 영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적이 있어 길진섭과 마찬가지로 장발과의 연락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16</sup>

서울대학교 개교당시 서울미대의 교수 가운데 윤승욱은 도쿄미술학교 출신인 점 외에 장발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그는 휘문고보 출신으로,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하고 미국유학에서 귀국한 장발의 제자였던 것이다. 한국전쟁당시 행방불명된 그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종영 역시 윤승욱과 마찬가지로 도쿄미술학교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 휘문고보 출신으로서 장발의 제자였던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4 吉田千鶴子, 앞의 책, p. 191.

15 吉田千鶴子, 앞의 책, p. 196.

16 吉田千鶴子, 앞의 책, p. 194.

서울미대의 설립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관여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어떤 미술가가 배제되었는가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특히 도쿄미술학교 출신으로 식민지시대 엘리트화가였던 김인승, 심형구의 경우 그들의 지명도나 식민지시대정력으로 보자면 길진섭이나 송병돈을 능가하는 화가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이 서울미대의 설립에 배제된 것은 당시 여타의 미술학교 설립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일제의 격화된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부일협력함으로써 친일의 오명을 쓰게 되었던 때문으로 보인다.<sup>17</sup>

#### 4.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제도적 연관

인적인 연관에서 보았듯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설립과정은 도쿄미술학교 수학생이나 졸업생이 교수진의 수적 다수를 차지하며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과명칭이나 초기 운영방식, 커리큘럼 등 제도적인 면에서도 도쿄미술학교와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먼저, 전공학과와 설치에서 회화과와 조소과, 도안과 등 전부 3개 과로 출발한 것은 도쿄미술학교가 개교 당시 회화과, 조각과, 미술공예과로 출발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전공학과와 명칭에 사용된 회화와 조소, 그리고 도안은 각각 시기는 다르나 일찍이 도쿄미술학교의 학과명칭에서 사용된 바 있다. 예를 들면 1887년 개교 당시 도쿄미술학교에는 일본화만을 전공으로 한 회화과가 있었고, 조소의 경우는 개교 당시의 ‘조각彫刻’을 한 시기 경과한 시점에서 대체하게 된 용어다. 원래 영어 sculpture를 일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어 ‘彫刻’을 사용하였으나 1893년 10월과 이듬해 10월에 각각 「조소의 미술계에 있어서의 지위彫塑ノ美術界ニ於ケル地位」, 「조소론彫塑論」을 『교토미술잡지京都美術協會雑誌』에 기고한 오무라 세이가이가 ‘조각’에는 carving의 의미만 담겨 있음에 주목하여 modelling을 포함하는 ‘조소彫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도쿄미술학교에서는 1899년 조각과에 소조과가 설치된 이래 1949년 도쿄미술학교가 폐지될 때까지 조각과 소조부라는 이름을 유지하였다. 서울미대의 학과명칭이 조소과가 된 것은 초기 교수로 초빙된 윤승옥의 출신이 조각과 소조부였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쿄미술학교 도안과의 경우 서양화과와 함께 1896년에 처음 설치

되어 1933년 공예과 도안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일본에서 도안圖案(혹은 圖按)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77년의 일로서 영어인 design을 한자어로 바꾼 것이다.<sup>18</sup> 서울미대에는 개교 당시 학과명칭이 도안과였던 것은 초기 도안과 교수였던 이순석이 재학 당시 도쿄미술학교의 학과명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도안과는 응용미술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응용미술과 공예과, 산업미술과 등으로 분리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디자인학부가 되었다.

초창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입시제도는 석고대생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는 도쿄미술학교의 입시제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도쿄미술학교의 경우 개교 당시에는 1. 독서 및 작문, 2. 산술, 3. 일본역사, 4. 임화, 5. 도안 또는 조각모조 등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점차 변화를 겪었다.<sup>19</sup> 서양화과와 도안과가 설치된 1896년에는 외국어가 더해졌고, 1915년 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모필이나 연필로 자유화를 그리는 일본화과와 도안과 등과 묵탄화를 그리는 서양화과, 조소로 제작해야 하는 조각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복잡해졌다.<sup>20</sup> 마지막 시기라고 할 1947년에는 각각 1차 실기시험과 2차 필답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한 학생들이 이수한 초기 커리큘럼에 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서울대학교 본부에 남아 있는 학적부 관련 자료에는 “학적부 불비치로 인하여 1963년 11월 23일에 작성”하였다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성적표를 통하여 당시 커리큘럼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서울 미대의 커리큘럼에 관해 단정적으로 논의하려는 일부 연구자들의 시도들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초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커리큘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로 지적된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개교 당시 예술대학 미술부의 조직을 주도한 장발이 종합대학체제 내의 미술학부를 당시 현실에서 이상적인 교육구조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sup>21</sup> 물론,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적어도 개교 초기에는 그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18 竹原あき子・森山明子監수, 『日本デザイン史』(東京: 美術出版社, 2003), pp. 24-25.

19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学百年史-東京美術学校篇 第二卷』(東京: ぎょうせい, 1992), p. 115.

20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学百年史-東京美術学校篇 第二卷』(東京: ぎょうせい, 1992), pp. 678-679.

21 정영목, 앞의 글, p. 50.

17 김용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미술가들」, 『한국미술100년』(한길사, 2006), pp. 377-379.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교초기 미술분야 교육의 경우 예술대학 미술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지적해두어야 할 점은 학교 운영이 단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커리큘럼의 운영은 학년학점제가 기본이었다는 사실이다.<sup>22</sup> 즉, 특정 학년의 이수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학점의 취득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과대학 중심의 학교 운영과 학년학점제가 시행되던 서울대학교 개교 초기의 상황에서 도쿄미술학교는 다시금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개교 초기 예술학부 미술부 입학생들의 성적표에서 볼 수 있는 이수교과목은 도쿄미술학교의 그것과 깊은 연관을 보여준다. 당시 회화과 학생 2명과 조소과 학생 1명, 그리고 도안과에 입학하였으나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1명의 성적표를 토대로 하여 재구성한 커리큘럼은 <표.2>와 같다.

<표.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초기 커리큘럼(과목명 뒤 숫자는 학점)

	1학년(1946)				2학년(1947)				3학년(1948)				4학년(1949)			
학생	회 화 A	회 화 B	조 소	도 안	회 화 A	회 화 B	조 소	도 안	회 화 A	회 화 B	조 소	도 안	회 화 A	회 화 B	조 소	도 안
교과목 및 학점	영어8				국어6				체육2				체육2			
	미술10				체육1				미술14				미술10			
	동양미술사6				미술16				서양미술사6				고등미술16			
	구성6				해부학3				서 예 4	한 문 2	미학사 6		조선미술사6			
	해부학6				서양미술사6				국사6				문인화 3		불 어 3	문 인 화 3
	도학6				철학개론4				문인화6		사진3		졸업작품12			
	서예4				과학개론6				미학사 6		문 인 화 6	사 군 자 6	졸업논문8			
	조소4				미학6						실 기 6	불 어 6	실기 6			
학점계	50				48				44	42	49	49	63		54	54

22 정영목, 앞의 글, p. 50 및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40년사』, p. 31.

<표.3> 도쿄미술학교 예과 교과목 (1933-1943)

과목	주당시간수				
	일본화과지망	유화과	조각과	공예과	건축과
수신	1	1	1	1	1
회화실습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조각실습					
도안실습					
도안원리				2	
구성원리					2
동양미술사	2	2	2	2	2
서양미술사	2	2	2	2	2
동양문학	2	2	2	2	2
圖學	2	2	2	2	2
해부학대의	2	2	2	2	
영어/불어	2	2	2	2	2
수학 및 역학					3
체조	2	2	2	2	2

<표. 2>에 드러나 있는 것과 같이 1학년의 경우는 영어를 비롯하여 동양미술사, 해부학, 서예, 조소 등의 과목을 50학점을 이수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도학圖學이나 미술 등의 과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쳤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1학년 과목에 등장하는 포함된 도학은 <표. 3>에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1933년 도쿄미술학교의 규정 개정에 의해 1학년에 해당하는 예과의 교과목으로 처음 등장한 과목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sup>23</sup> 당시 도쿄미술학교의 경우 동양미술사를 2학점, 도학을 2학점 이수하게 되어 있고, 2학점인 영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할 수 있었다. 도쿄미술학교가 개교한 이래 수 차례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도학은 이후 예과가 폐지되고 수업연한이 4년으로 축소된 1944년의 개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1947년 개편 당시의

23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 642.



교과과정에 이르러서야 보이지 않게 된다.<sup>24</sup> 그리고 모든 전공의 1학년 학생들이 6학점을 이수한 구성의 경우 과목명으로는 도쿄미술학교의 건축과 예과 과목인 구성원리가 있고, 공예과 예과 과목인 도안원리나 도안실습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과목을 담당하였던 이순석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sup>25</sup> 따라서, 초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육과정과 과목명은 교수진 가운데 도쿄미술학교 출신으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윤승욱이 재학할 당시의 과목명칭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4)

〈표.4〉 도쿄미술학교 교과목(1944-1946, 일본화과)

교과목	주당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道義	1	1	1	1
실기 (일본화. 소묘. 도안. 書道)	22	24	22	24
국사	2			
국어	2			
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일본회화사. 중국회화사)	2	2	6	2
미학				2
圖學 및 제도	2	2		
미술해부학		2	2	
외국어	2	2	2	
교육학교수법				4
교련	4	4	4	4
체련	2	2	2	2
계	39	39	39	39

물론,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한 장발의 의견이 반영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양필수과목의 성격인 국어나 국사, 영어, 체육 등을 제외하면 1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구성이나 3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사진의 경우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과목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학년 서예과목의 경우 전시체제하의 교과목운영이라는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1944년 도쿄미술학교에도 실기과목에서 서도書道가 있는 만큼 양자 사이의 연관을 고려해볼 수 있다.<sup>26</sup>

교육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학년인 3, 4학년 과목 가운데 문인화, 사군자 등의 과목이 비중있는 과목으로 개설된 점이다. 표에서 다룬 4명의 졸업생 가운데 회화과 학생들은 3학년 때 문인화를 6학점, 4학년일 때 문인화를 3학점 이수하였고, 조소과나 응용미술과 학생들도 사군자, 문인화를 이수한 사실에 비추어 미술대학 전체 문인화, 사군자의 비중이 컸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 후 회화의 일본색을 청산하려 한 과정에서 문인화를 중시하였던 풍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회화과 교수로 영입된 김용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컬럼비아대학과의 연관이 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첫 번째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나, 장발의 컬럼비아대학 유학 사실과 개교 당시 그의 지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초래된 추측인 만큼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로 개교 초기에는 도쿄미술학교와의 연관이 깊었고, 그 만큼 컬럼비아대학과의 연관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식민지시대의 학부 즉, 오늘날 단과대학 단위 중심의 학교운영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점과 함께, 국대안에 의한 종합화가 실질적으로는 단과대학 중심의 운영체제가 가진 견고한 틀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와 함께 커리큘럼의 운영에서 컬럼비아대학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시기는 1951년 미술대학으로 독립하여 커리큘럼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인 사실 역시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sup>28</sup>

24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p. 945-946 및 pp. 1051-1053.

25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p. 638-642.

26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pp. 945-946.

27 김용준,『민족미술론』근원김용준전집5(열화당, 2002) 및 장우성,『書壇풍상七十年』(미술문화, 2003), pp. 72-74.

28 정형민, 앞의 글, pp. 33-36.

##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그 존속연대에서는 엇갈렸지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와 같은 관련은 1차적으로는 장발이나 김용준과 같은 도쿄미술학교 수학생들의 존재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특히 제도적인 연관에서 보듯이 일정 부분은 도쿄미술학교의 경우를 참고한 데서 유래한 유사성으로 추측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장발이 미술 분야의 교육에 대해 종합대학체제 내의 구조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가 이상적인 모델로 지향하였던 바가 종합대학체제 내의 미술교육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울대학교 개교 초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실현하기는 곤란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자 사이의 연관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이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점과 해방 후의 좌우 이념대립과 미군정이라는 혼란 상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한 시기 동안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고, 도쿄미술학교와의 인적, 제도적 연관을 넘어서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는 데는 도쿄미술학교와의 연관을 얼마나 또, 어떻게 넘어섰는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주제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쿄미술학교, 장발

김용준, 『새근원수필』근원김용준전집1(열화당, 2001)

——, 『민족미술론』근원김용준전집5(열화당, 2002)

김용철, 「도쿄미술학교의 입학제도와 조선인 유학생」, 『동악미술사학』6

장우성, 『畫壇풍상七十年』(미술문화, 2003)

정영목, 「한국현대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46-1960」, 『조형』19(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6)

정형민, 「창작과 교육의 공존의 가능성을 향하여-한국미술교육의 현대성의 논리」, 『조형』19(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6)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서울대학교二十年史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二十年史』(서울대학교, 1966, pp. 441-444에서 재인용)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40년사』(서울대학교, 1986)

하동철 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서울대학교미술대학, 1993)

『毎日申報』1941. 4. 23

『藝術通信』1946. 6. 25, 11. 9

竹原あき子・森山明子監수, 『日本デザイン史』(東京: 美術出版社, 2003)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二卷』(東京: ぎょうせい, 1992)

東京芸術大学百年史刊行委員会編, 『東京芸術大學百年史-東京美術學校篇 第三卷』(東京: ぎょうせい, 1997)

吉田千鶴子, 『近代東アジア美術留学生研究』(東京: ゆまに書房, 2009)